

2000년 임산물 총생산액 2조 336억원, 전년보다 18% 증가

산림청(廳長 申洵雨)은 임산물 23종 350품목에 대한 조사결과 2000년도 임산물 총생산액은 2조 336억원으로 1999년도 1조 7,268억원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산림청은 임산물 23종 350품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00년 한해동안 임산물 총생산액은 1999년도 1조 7,268억원보다 18% 증가한 2조 336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2000년도 주요 임산물을 살펴보면 조경재가 6,974억원 34%, 잣 등 수실류가 3,913억원 19%, 농용자재 2,450억원 12%, 산나물, 버섯류가 각각 10%, 용재, 조림, 톱밥 등 15%로 나타났다.
- 1999년도 대비 주요 증가액은 조경수, 분재, 야생화 등 조경재가 103%인 3,544억원, 산나물이 62%인 770억원, 밤, 잣, 호도 등 수실류가 12%인 421억원, 목탄, 장작등 연료가 220%인 315억원이며, 특히 표고 및 조경재는 생산량과 생산액이 계속 증가한 반면,
- 주요 감소 품목은 퇴비 등 노요용자재가 1,724억원, 조림 137억원, 양묘 102억원, 톱밥 61억원, 용재 19억원 등으로 퇴비, 사료 등 농용자재는 농산촌 노동력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생초 사용이 크게 줄어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생산지역을 살펴보면, 용재의 경우는

정선, 삼척, 횡성 등 산림이 울창한 강원도 지역이 많으며, 밤생산은 전남 광양, 충남 공주 및 부여, 경남 산청, 하동 진주 및 고성 등 주로 남부지역, 대추와 송이는 경산, 청도, 울진, 영덕 및 봉화 등 경북지역에서, 잣은 가평, 포천 및 양평 등 경기도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0년도 임산물 총생산액의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율은 0.2%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나 산림의 공익적 가치 49조 9,510억원을 포함하면 약 10%로 늘어나게 된다.
-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금까지 임목의 연간 성장량은 임산물 생산액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도 평가 하기로 하고 금년 8월말까지 임상별·영급별 임목가격을 산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 경우 최종 임산물 총생산액은 2조 336억원보다 더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의 가장 큰 특징은 산림에 투자하는 것은 환경적 가치는 물론 임산물 생산과 같은 경제적 가치도 함께 증가한다는데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산지소득 증대를 위하여 무공해 버섯, 산나물 등과 같은 고소득화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산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숲가꾸기 등 집중적인 무육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